

전남대 국내 대학 10위권 진입 ‘코앞’

비영리 교육단체 CWUR 등 평가 결과 상승세

연구 역량·특히 객관적 지표에서 ‘상대적 강세’

전남대학교가 비영리 교육단체인 CWUR이 발표한 대학 순위에서 국내 1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기관들의 잇따른 대학평가에서 국내 10위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특히 전남대는 세계적인 기관들의 객관적인 평가에서 연구역량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국내 순위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 같은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

19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인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이 세계 2천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9-2020 CWUR 평가 결과 전남대는 총점 74.7점으로 국내대학 10위권에 불과 0.3점이 부족한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연속 이어진 순위이자, 거점국립대 3위에 해당한다. 세계 순위는 45

5위이나 연구수행력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428위를 기록했다.

앞서 전남대는 로이터 뉴스의 ‘2019 아시아-태평양 최고혁신대학’ 평가에서 국내 13위, 거점국립대 2위, 아시아 5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는 국내 14위, 아시아 55위였다. 특히 이 평가에서 전남대는 특허출원건수 대비 특허 성공률이 무려 87.9%로 서울대, 칭화대, 도쿄대 등을 크게 앞질렀다.

또 국립 타이완대학의 ‘세계대학의 과학논문 성과’에서도 전남대는 국내 11위, 거점국립대 2위, 세계 42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13위, 세계 459위였다. 24개 주제별 순위에서 농·공학, 자

연과학 분야가 특히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한편, CWUR은 학생들의 교육 및 훈련의 질뿐만 아니라 교수진의 명성과 연구의 질을 ▲국제상 수상 동문 수를 기준으로 한 교육수준 ▲주요기업 CEO 동문 수를 기준으로 한 동문 고용 ▲교수 수준 ▲연구실적 ▲고품질 간행물 ▲논문 영향력 ▲논문 인용 등 모두 7개 평가지표로 측정한 세계대학 순위를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세계 최상위대학은 하버드, 메사추세츠공대, 스탠포드, 캠퍼리지 등이 차지했고, 서울대는 33위에 올랐다.

/김종민기자

전남안전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사전점검 한창

내달2일 정식 개원...교통·화재 등 6개 분야 22개 시설 갖춰

9월 초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전남안전체험학습장(센터장 장우진)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해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영광지역 유·초·중·고 9개교 616여명의 학생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영광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체험 연수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영광지역 교육참여위원회 위원, 영광군청 직원, 영광교육청 및 관내 학교 교직원들이 참석해 학습장 내 안전체험 시설을 견학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오미화 교육참여위원장, 영광연산중 정광운, 해룡고 정종복 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응급처치(심폐소생술)요령, 화재안전(소화기, 화재대피, 완강기), 지진안전 등을 직접 체험해보며 안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다.

오 위원장은 “완강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안전벨트 착용법과 하강하는 방식을 익혀서 안전하게 내려와 뿌듯함을 느꼈다”며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와 소통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려는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의 배려가 고마웠고 학생들이 질 높은 체험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장 센터장은 “안전은 교육주체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지역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안전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9월2일 오후2시 개원 기념식을 갖고 다음날부터 정상 운영하게 된다.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은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법성초등학교 진랑분교장에 연면적 4천980㎡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섰으며, 재난안전·교통안전·생활안전·선박항공안전·학생안전·화재안전 등 6개 분야 22개 체험장을 갖추고 있다.

/김종민기자

호남대 ‘2024광주IFFA대회’ 홍보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이희승) 학생들이 최근 2019 IFAA(국제해부학회) 런던대회에서 2024년 IFFA광주시 대회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호텔경영학과 3학년 박정우씨와 강대운씨는 개최장소인 ExCel London에서 홍보부스 운영요원 및 ‘광주의 밤’ 행사에 스태프로 참여해 광주의 매력과 MIC E 개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알렸다.

2024년 IFAA 대회는 대한해부학회 주관으로 9월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전세계 30개국에서 1천여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기자



전남안전체험학습장(센터장 장우진)이 9월2일 정식 개원을 앞두고 영광소방서와 합동으로 영광지역 유·초·중·고 9개교 616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연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강대, 기술융합형 ‘P-Tech’ 사업 선정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기계자동화·호텔조리 등 2개 과정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해나갈 한국형 마이스터를 양성한다.

동강대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기술융합형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ology)’ 사업에 선정됐다.

동강대는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한국폴리텍대학을 제외하고 광주·전남지역 사립전문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P-Tech’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동강대는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최대 6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계자동화과와 호텔조리영양학부에서 2개 과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P-Tech’은 고교 때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취업한 도제학교 졸업생들이 기업에 근무하면서 전문대학에서 2년간 이론을 공부하고 경력을 쌓으며 고숙련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경력개발 경로 사업이다.

참여 학생은 기업과 대학을 오가며 현장 실무능력과 학위(전문학사)를 취득하게 된다.

P-Tech 사업단 김명수(기계자동화과) 교수는 “취업 후에도 교육비 부담 없이 융합·최신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청년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며 “지역거점센터 역할을 주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광주대 글로벌 역량강화 장학 토익반 개설

2개반 각각 선착순 모집...해외연수 가산점 부여 등 혜택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19일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목표로 장학 토익 특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9학년도 2학기 환급형 장학 토익 특별반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장학 토익 특별반은 영어문장 구조 및 문법 기본 반과 시험문제 유형 학습반 등 2개 반으로 운영되며, 각 반 선착순 70명으로 마감된다.

수업은 내달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되며, 요일별로 오전반과 오후반 주 3회씩 펼쳐진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운영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가산점을 받게 되며 스티디 그룹학습과 교재, 수강료 등도 계속 지원받는다.

또 출석률 80%와 정기 토익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학생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점수받은 비용 5만원은 환급토록 했다.

이에 앞서 광주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난달 4차 산업혁명 우수 해외대학인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의 융합 전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현중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면서 “이번 장학 토익 특별반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받아 더욱 성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조선대 ‘학생통합지원시스템’ 본격 운영

새로운 홈페이지 ‘CU+’ 선보여

들어갔다.

조선대학교가 CU-SP문화마일리지 &비교과교육과정과 취업포털, 원스톱 상담시스템로 나뉘져 있던 기존 홈페이지를 통합한 새로운 홈페이지 ‘학생통합지원시스템 씨유플러스(CU+)’를 오픈했다.

19일 조선대에 따르면 학생통합지원시스템 씨유플러스는 진로탐색 및 설계, 취업을 위한 역량개발과 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초 및 직무역량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씨유플러스는 진로설계, 역량개발, 취업실전, 창업준비 등 4가지 카테고리 기반으로 로드맵이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MY역량관리, 원스톱상담, CU-SP문화마일리지, 비교과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https://cuplus.chosun.ac.kr>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김종민기자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으로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